

관찰의 순간은 언제나 혼자다 : 이 상 원

김남인(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빠곡히 모인 사람들과 활짝 펼쳐진 파라솔로 채워진 수영장, 커다란 새 무늬의 연이 드리워진 한강 공원. 2년 전 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만났던 그 작품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상원의 작품에 대한 글을 쓰면서 고심하고 있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당시 그가 작업하고 있던 창동 스튜디오의 한 벽에 걸린 일련의 작품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후 그가 뉴질랜드 크라스트처치의 한 레지던스에 머무르며 작업한 <Run>을 보게 되었고, 그 작품세계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이상원은 <Hangang Park>(2006), <Swimming Pool>(2007), <Climbers>(2007), <Ski Resort>(2007) 등 한강 고수부지의 공원이나 수영장, 등산하는 사람들, 스키장 등을 그려 왔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작업에서는 <Run>(2008)이 보여주듯 스튜디오 앞의 해글리 파크(Hagley Park)에서 조깅이나 스케이트 보드, 자전거타기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렸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위해 그의 스튜디오를 찾았을 때 그는 그 전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 속의 이 장소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이상원의 작품들은 대개 '여가', '일상이 아닌 휴식의 공간'이라는 특징에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여가의 장면은 오랜 시간 많은 작가들이 그려 온 주제이다. 잘 알려진 예로 <그랑자트의 일요일 오후>를 통해 쇠라는 여가, 일상 외의 시공간이라는 근대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상원 역시 현대판 여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쇠라의 작품의 의미가 '무엇을 그렸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렸는가'에 있는 것처럼, 이상원의 작품 역시 그가 선택한 이 주제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작품의 무엇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에 머무르게 했는지 말이다.

<Hangang Park>, <Swimming Pool>과 같은 작품에는 넓은 시야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온다. 마치 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수리부터 아래로 보인다. 공원이나 수영장의 파라솔 역시 마찬가지다. 위에서 내려다 본 이와 같은 시점, 또한 작지 않은 작품의 크기 때문에 네모난 운동장이나 수영장, 한 칸에 뺀 도로와 그 위에 그려진 화살표, 나무들의 배치 등 공원과 수영장의 공간적 윤곽이 전면에 드러난다. 현재 이 공간 안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사람들은 혼자서, 혹은 여럿이 모여 이 공간 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보면 미묘한 현기증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때 그의 그림이 갖는 비현실성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의 장면이 아니다. 이 현기증은

사실 화가의 시점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자연스러움과는 다른 분명한 시각적 장치가 구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화면에는 원근이나 투시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 색상 역시 그러하다. 그림자의 지나친 반복이 보여주듯 빛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듯하다. 창공을 날고 있는 연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 쪽부터 저 쪽의 파라솔까지, 명암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의 빛이 이와 같이 균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경과 배경, 빛의 조정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며 눈을 끄는 것이 있다. 사람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작가의 관찰력이 살아난다.

관찰은 그의 작업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과 그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많은 사진을 찍고 드로잉한 후, 그 장면들을 조합해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공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밌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와 같은 고민은 그의 초기 작품인 <Yellow Sea>(2006)부터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의식이다. 전면에 쪽 뺨은 구조물, 손을 들고 바다 너머를 쳐다보는 한 사람, 먼 바다 너머 모여 있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섬은 이후의 작업들이 공간의 위아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듯 앞뒤 공간에 대한 시각적 줄다리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이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얼굴이나 표정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상원의 화면이 보여주는 가시성은 움직임의 어렵פות한 흔적에 가깝다. 즉, 움직임의 인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이후의 작품 <Run>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데, 낱장의 종이에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그려져 있다.

이상원의 작품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작품이 유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볍고 투명한 수채화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Yellow Sea>의 수채화와 같은 황색조는 흙이 섞인 황해의 바다색을 떠올리면서도 물감의 흘림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흔적은 <Swimming Pool>에서도 볼 수 있다. 바다와 수영장이라는 습기어린 장소성 때문인지 언뜻 지나치기 쉽지만 이와 같은 물감의 흔적은 유화를 수채화처럼 그려내는 작가의 화풍과 기질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콘크리트 바닥과 알루미늄 프레임마저 따뜻한 색으로 통합시키는 이상원의 독특한 색감과 만난다. 이렇게 보면 그가 여가의 장면을 그린 것이 여가 자체에 대한 관심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공원이나 수영장, 등산, 스키장에는 나무와 물, 산, 눈이 있다. 그의 스튜디오에 붙은 작은 작품들에서는 자연에 대한 화가의 예민한 감각이 분명히 감지된다.

이와 같이 맑은 유화를 그리던 작가는 <Run>에서 종지와 수채화를 선택한다. 사람들의 옷매무새와 움직임, 그들과 함께 뛰는 동물의 움직임은 어렵פות한 얼굴과 물기어린 물감의 흐름을 통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 드로잉들을 모두 연결한 애니메이션 작업은 여러 인물들의 움직임을 조합해 놓았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동작의 패턴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한편 이상원의 작품 속 인물들은 여러 명이건, 한 명이건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리지만 각각의 종이 위에 그려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씩의 끈이 달려있는 듯 그 순간만은 홀로 존재하는 듯하다. 다만 애니메이션 작업이 보여주듯, 보는 이는 움직임의 패턴을 통해 그들이 서로 닮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 닮음을 볼 수 없다. 오로지 관찰하는 작가의 눈을 통해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찰은 현재의 순간이라기보다는 회고된 과거, 기억에 근거하며 그 기억은 그대로 기억할만한, 유쾌하고 여유로운 시간의 기억들이다. "기억의 순간은 언제나 혼자다", 라고 제목을 쓰다가 '기억'이라는 말을 '관찰'로 바꾸어 본다.

회화란 무엇인가? 회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이상원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에 고민했던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화가라면 누구라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미술은 이미 모든 것을 실험한 듯, 모든 것을 시도한 듯 보였으며 작가는 늘 그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갖는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나 늘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작가 자신, 독립자로서의 작가로부터 나왔다. 이미 그는 유화에서 수채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스스로 문제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상원의 진지한 자세와 예민한 관찰력은 그 풀이의 과정을 기대하게 만든다.(*).